

백년대계의 교육, 정치화가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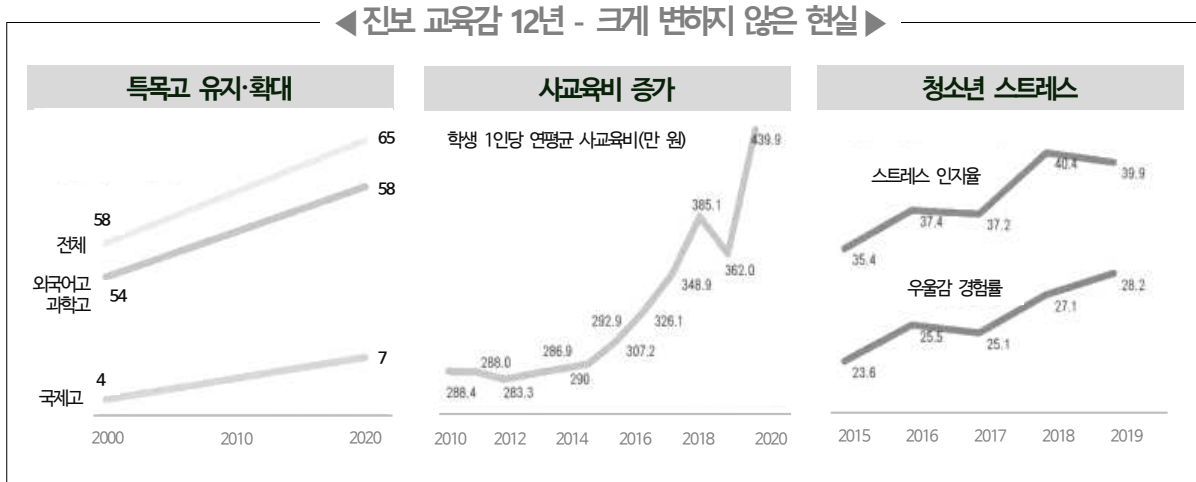
지난 6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대 보수 교육감 비율이 9 대 8로 나뉘었다.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초·중·고교 정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교육감의 역할

교육감은 각 지역 교육청의 장으로, 유·초·중·고 교육 및 사교육을 총괄한다. 교육감의 권한은 관찰 지역 학교장 및 교사에 대한 인사권부터 교육 예산 편성, 조례 및 규칙 제정 및 학교의 설립·폐지 결정권을 아우른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등교 시간, 복장 등의 생활에 관한 사항과 학력진단평가 시행 여부처럼 교실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을 재량껏 펼칠 수 있다. 교육감은 과거에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다가 1991년 지방선거 시작과 함께 교육 위원, 학교운영위원, 교원단체 등이 간접선거로 뽑아왔다. 그러다 2007년 직선제로 바뀌었다. 직선제로 바뀐 이유는 교육감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에 밝혀져 있다. 교육은 어떤 권력이나 외부의 힘으로부터 본연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정치의 관여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방식과 목적은 정치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진보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에 따라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진보교육과 보수교육 차이

진보교육정책은 학생의 자율성과 경쟁 해소를 중시



한다. 사회적 형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에도 관심이 많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이 사례로 꼽힌다. 보수교육정책이 주장하는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귀족학교’를 인정하면 학생 간, 학교 간 서열화로 학벌 세습만 부추린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는 대신 진보의 간판 브랜드로 내세운 것이 경쟁에서 자유로운 혁신학교이다. 보수교육정책은 학생의 자율성보다는 교권(교사의 권리 및 권위)을 중시한다. 학력 향상을 우선시해 상대적으로 교육 경쟁에 우호적이다.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중시하는 만큼 공교육에서도 평준화보다는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의 존중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유지와 시험 유지가 있다.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평준화 정책은 ‘붕어빵 교육’,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뿐이며 다양한 학교에서 수준별 학습을 하는 것이 서민층 학생에게도 득이 된다고 본다. 또 자사고와 특목고 같은 명문 학교가 있어야 인구 유입으로 지방 경제도 산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 12년의 평가

진보교육감의 12년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2010년 서울과 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작되었다.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 인권은 대부분 1기의 성과다. 2014년부터 시작된 2기에는 진보교육감 지역이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그들은 고교 평준화 확대, 자사고 폐지, 대학 평준화, 대입 제도 개선 등 입시 고통 해소와 교육 복지 강화 등을 공통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2014~2015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진보교육감 다수는 자사고들을 살려 줬고, 자사고의 절반 이상이 있는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은 우파의 반발에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완패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3기에는 한 곳이 더 늘어 총 14곳이 진보교육감 지역이 됐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쫓겨나면서 이재야말로 진보 교육을 펼칠 시대가 열릴 거라는 기대가 컸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 확대, 자사고와 특목고 유지, 교원 감축 등 다른 교육 정책도 전임 우파 정부와 별다를 게 없었다. 진보교육감 시대 12년 동안 기대만큼의 변화는 없었다. 혁신학교가 수천 곳으로 늘어났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 경쟁의 고통에 시달린다.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 복지가 조금씩 확대되긴 했지만, 교육 양극화는 심화했다. 일부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가 확대되긴 했으나, 특권 학교와 고교 서열 체제는 굳건히 유지됐다. 사교육비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내 인생의 한 구절

다니엘 12장 3절

“생명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배기동

(월드와이드교회 부목사)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다니엘 12: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것이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운영 계획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나의 갈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험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늘 사탄의 각종 시험이 난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충돌이 생긴다

는 세상의 이치를 배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없다면 주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가기 어렵다는 사실은 깨닫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기쁨과 자긍심보다는 낙심의 그늘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우울한 기분에 성경을 읽어가던 중 정신을 높이는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 12:3이 지쳐가는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고 쓰러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내기에 충분한 영감을 주는 성경 구절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인생의 어떤 도전에도 직면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애착이 있는 대부분 사람이 실상은 의심, 절망, 낙담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추천합니다.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상황을 다룰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웰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무엇이 중한가?” 이 한마디에 인생의 회한을 느끼기도 하고, 여한 없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도 합니다. 돈, 명예, 건강 등 모두 열심히 추구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건강을 잃고 다 놓친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삶의 질의 첫 번째 요소는 건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건강경영전략연구소의 윤영호 교수는 성인 1200명을 면접 조사한 뒤 ‘일반 국민의 주관적 웰빙(삶의 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삶의 질 14개 항목 중요도(0~10점) 인식에서 건강(9.2점)과 가족 및 가정(8.9점)이 높게 나왔고 안전(8.6점), 소득(8.5점)과 삶의 만족도(8.5점) 부문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기본적인 ‘존재(BEING)’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강은 인간 자체의 종합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한 곳의 문제는 전체를 정지시킬 만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 영혼까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상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신장도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게 태어났기에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에 가깝게 건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살이가 영경위를 개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육체가 쇠약해가는 여정이기에 시기만 다를 뿐 언젠가는 누구에게든지 발병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잔병치레 없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파보지 않았기에 아픈 사람들의 사정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강차 한잔 마시면 감기는 금방 낫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일어나니?” “하루 잠 꼭 자고 나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 “너 자신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

문이구나!” 등으로 건강한 사람은 일반적인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역지사지’의 방법으로 이해의 폭을 조금 넓히도록 때론 고난도 허락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인생은 질고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는 말처럼 ‘유비무환’을 하는 태도는 지혜롭습니다.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 건강을 잃은 것은 자업자득이죠. 조선의 왕들이 40대 전후로 많이 죽은 이유도 그들의 무절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태어날 때부터나, 후천적으로 불가피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생존 투쟁하다가 건강의 위해를 겪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생존 생리는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심각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위해를 줍니다. 건강한 정신은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질병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 인간은 걱정, 동물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때론 오늘 긍정적인 노동력을 일으킵니다만,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 쉬 없이 일하고 돈을 벌고 작고 큰 욕구들을 충족시키며 살다 보면 소비하는 만큼 더 많은 수익을 원하게 됩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원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돈에 얽매이면서 건강은 지킬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마음 졸이며 일하게 되면 그래서 노년에 의료비나 간병비로 다 나가게 되고 악순환이 오기도 합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상실되면 마음도 그에 따라 상응하기 때문에 공포나 두려움 슬픔이 많아집니다. 사고 자체가 낙관적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곧 육체, 정신, 영의 전인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질환 중에 있는 분들이나, 건강한 분들에게나 건강을 연장시키기 위해, 행복을 누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해보

는 것은 지혜입니다.

첫째, ‘일소일소 일노일로(一笑一小 一怒一老)’란 말과 같이,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만큼 건강해지며, 한번 화내고 긴장하면 그만큼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 있다는 말을 유의합시다. 인생에서 웃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바른 정신 관리는 웃음에서 나옵니다.

둘째,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건강을 시키기 위해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항상 운동해야 합니다. 규칙에 따라 일하고 쉬어야 합니다. 많은 일이 있어도 매일 8시간씩 자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많이 마시고 말고 절주를 해야 합니다.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또한 밤새워 놀면 안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운동과 걷기는 최소의 건강을 지키는 과수병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셋째, 남과 적응하고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남과 좌충우돌하는 사람, 타인과 원만한 협동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남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은 정신적 건강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넷째,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며 그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기도하며 마음의 고민과 짐을 그분께 던지는 삶이 중요합니다.

40세 이후의 얼굴은 당신의 이력서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상인가, 깃털처럼 가벼운 인상인가는 그분을 만나, 그분께 각종 염려를 맡긴 사람이 누리는 건강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종말이 온다면 그분께 맡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른바 웰빙에서 웰다잉(WELL DYING)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 ‘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한반도로 오는 스툼, 우리가 살 길은?

코로나19 사태로 붕괴한 국제질서를 재건하며 2022년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과연 어떻게 펼쳐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상황

■미국과 중국의 관계

최근 미중관계는 트럼프 정부 시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무역갈등을 넘어 가치와 이데올로기 경쟁으로까지 격화되면서 사실상 신냉전으로 일컬어질 만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정학적 영역에서는 중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좌절시키기 위한 반(反)접근·지역거부 전략과 미국의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을 통합한 국제기구), 오키스(호주, 영국, 미국 3국이 맺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안보 파트너십, 즉 새로운 군사동맹) 등의 군사적 대립을 중심으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 기술영역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을 비롯해 AI, 5G, 우주와 학기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맞서고 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로 6개 구역의 해공역에서 중요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했다. 군사 위협을 통해 중국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고, 대만의 주권이 중국에 있음을 주장한다.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만군과 미군이 적극 대응하게 되면 미중 간 '4차 대만 해협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1차 위기는 1954~1955년 중국이 "대만 해방"을 목표로 대만 점유의 진면섬과 마쭈섬을 포격한 것에서 시작됐고, 2차 위기는 1958년 중국이 같은 곳을 재차 공격하면서 고조됐다. 3차 위기는 1995년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이 가져와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4차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세계로 확산되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구실로 대만 해협에서 공격적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국제정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에 접어들고 있다. 먼저 이번 전쟁이 주권국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침략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분명 국제법 위반이다. 하지만 미국이 러시아의 전통적 영역권을 계속 침범해 들어온 나토 동진확장 정책이야말로 이 전쟁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동인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역시 전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도 바이든 정부는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동맹 세력을 재규합하면서 나토 군비증강,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재결집하고 공고화하는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에너지 식량 부족 러시아는 대러제재에 거뜬히 버티면서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며 오히려 중러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이다.

러시아는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을 전년 대비 67% 이상 늘리면서 유럽으로 수출 감소분을 능히 상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인도 역시 대러제재에 불참하면서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를 싼값에 더욱 많이 사들이며 제재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다.

특히 쿼드의 핵심 참여국인 인도의 대러 제재 불참은 미국에게는 뼈아픈 외교적 손실이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인도·중국(RIC)과 같은 전략적 신삼각관계가 강화되는 추세다. 나아가 브릭스 역시 미국 주도의 중러 견제에 반대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 식량위기, 공급망 위기로 이어지는 전쟁의 연쇄 과급력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하반기 연쇄 위기가 심화되면 독일을 비롯한 EU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각자 도생의 실리외교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을 계기로 세계는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로, 미·중·러·인·EU·일 6강 사이의 합종연횡의 다극체제로 급속히 전환되는 상황이다.

정세변화 속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동북아시아에서도 중국-러시아-북한을 한 축으로 하고 미국-일본-한국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중립적 외교를 포기하고, 친중국과 친러시아 정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통과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국방자위력과 핵무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절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소련 해체 후 모두 러시아로 자진 반환했다. 그 결과 30여 년 후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 이라크, 리비아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운명을 모두 지켜본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북한은 고강도 핵 능력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18년 4월부터 핵과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유지해온 북한은 올해 1월 '모라토리엄 재고'를 경고한 데 이어 두 달 뒤 3월 24일에 결국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쏘면서 결국 모라토리엄을 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이는 대화는 무의미한 입장이므로 북한 역시 '강대강' 노선을 정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북한은 7차 핵실험에서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탄두 소형화 실험을 할 것이 예상된다.

기폭장치는 핵 물질을 압축시켜 고온에서 연쇄 핵반응을 일으키는, 즉 핵폭발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다. 기폭장치의 정밀도는 필수 사전 절차로 꼽힌다.

북한 핵실험 주요 일지(종계리 앞대)

시행일자	인공지진 규모	폭발위력 1kt = TNT 1000t 폭발력	원료
2006.10.09	4.3	1kt 이하	플루토늄
2009.05.25	4.7	3kt-4kt	플루토늄
2013.02.12	5.1	6kt-7kt	고농축 우라늄
2016.01.06	5.1	6kt	수소탄
2016.09.09	5.3	10kt	
2017.09.03	6.3	140kt 이상	

출처: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외 BBC 자료

BBC

윤석열 정부의 미래전략

세계질서의 변화가 근본적이고 다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한국의 전략에도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미중 전략 경쟁과 다른 강대국들의 전략적 향방을 장기적으로 살펴 세계질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 남북 관계에서 북한 역시 중장기 국제정치의 변화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하고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이 추진해온 그간의 대북 전략을 근본부터 재구성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북한과의 협상에는 유연하되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

세계로 퍼지는 K-농업 기술 한류

한국의 농업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시장지배력이 높은 종자, 비료, 농약 분야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많은 나라가 식량 위기를 겪고 있고 농업은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산업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농업 기술은 세계 곳곳의 식량 위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통일벼 개량한 세네갈 ‘이스리’, 한국식 녹색혁명 일으키다

서아프리카의 가장 끝에 위치해 대서양에 접해 있는 세네갈은 1인당 GDP가 1400여 달러(2020년 기준) 밖에 안되는 빈국이다. 쌀이 주식인 서아프리카 최대 쌀 소비국인 세네갈은 자급률이 낮아 연간 필요한 양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연간 80여만 톤)한다. 쌀은 중요한 작물이지만 아프리카의 건조한 기후와 불리한 토양 여건 그리고 낮은 수준의 농업 기술 등으로 항상 식량난에 허덕였다.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네갈 정부는 2016년 한국 농촌진흥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세네갈의 식량 갑증을 해결한 것은 바로 한국에서 건너온 ‘통일벼’였다. 통일벼는 1960년대 중반 국내에서 시험재배를 거쳐 1970년대 초부터 전국에 보급된 벼 품종이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한국인에게

큰 힘이 됐던 통일벼가 5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아프리카까지 전해진 것이다. 농진청은 통일벼를 아프리카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게 품종 개량 연구를 진행했다. 2017년 그렇게 탄생한 세네갈형 통일벼 품종이 ‘이스리’다. 이스리-6, 이스리-7로 이름 붙여진 새로운 벼 품종은 한국의 통일벼 품종인 ‘밀양23호’ ‘태백’을 가져가 현지에 맞게 적응시험을 통해 탄생했다. 품종 등록 후 2018년에 세네갈 다가나 지역의 음부벤 마을에서 첫 재배가 이뤄졌다. 단위면적(ha) 당 생산량, 품질 등 모든 면에서 기존에 세네갈 현지에서 전국적으로 재배하고 있던 사헬(Sahel)을 뛰어넘었다. 세네갈뿐 아니라 아프리카 각국으로 한국의 쌀 품종은 확산 중이다. 농진청은 그동안 19개 나라에 맞는 쌀 품

종 55개를 개발했다. 말라위(2개), 말리(1개) 등에서 신품종 등록을 완료했고, 우간다·케냐·가나에서도 8개 품종이 개발된 상태다. 다른 9개국에서는 37개 품종의 지역 적응시험이 추진 중이다. K-농업기술은 옥수수

(캄보디아와 에콰도르)·감자(케냐)·양파(스리랑카)·참깨(파라과이)·땅콩(베트남) 등 다양한 작물에서부터 육계와 축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각 대륙에 퍼져 현지인들의 삶을 바꿔 나가고 있다.

주요 K농업기술 해외 전파 성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가	내 용
아시아 24개 국가	토양 및 병해충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아프리카 3개 국가	다수성 벼 품종 개발 및 현지 보급으로 식량안보 제고
중남미 9개 국가	기후 변화 대응 위해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 개발
캄보디아	옥수수 수입 대체 품종 보급 및 종자 생산체계 구축
파라과이	벼 수입 대체 품종 보급 및 종자 생산체계 구축
우간다	오렌지 재배 종합관리기술로 품질 향상 및 소득증대
카자흐스탄·베트남	국산 스마트팜 보급 및 패키지 구축

농림축산식품 수출 추이

단위: 달러%

구분	2020년1~10월	2021년 1~10월	증가율
신선	11억1010만	12억2380만	10.2
가공	50억5190만	57억630만	13.0
전체	61억6200만	69억3010만	12.5

사우디아라비아 AI 스마트시티 ‘네옴’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총투자비 약 5000억 달러, 우리 돈 약 645조 원을 들여 서울의 약 43배(약 2만 6500km²)에 달하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우디 북서부 지역에 부지가 예정돼 있고 황무지와 다름없는 사막 위에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석유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이다. 네옴은 그리스어와 아랍어로 ‘새로운 미래’라는 뜻이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트로제나, 옥사곤, 더 라인의 세 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트로제나는 주로 관광과 레저 공간으로, 옥사곤은 7km에 이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식 산업 공간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간-기계 융합, 인공지능과 예측지능,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산업 중심지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길이 170km에 달하는 자급자족형 직선도시 ‘더 라인’은 홍해에서 사막을 직선으로 관통한다. 주거와 업무 공간으로 컨

셉을 나누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공존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1월 네옴 프로젝트는 첫 번째 개발 사업으로 더 라인 건설 계획을 완성했다. 더 라인은 지상에 도로와 자동차를 없애고 자연과 사람 위주의 초연결 미래 사회를 추구한다.

더 라인 건설은 초고속 운송 수단 구축을 통해 이동 시간을 20분 내로 단축하고, 학교, 의료, 레저 시설, 공원 등 생활 시설은 도보로 5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올해 1분기 사우디 정부는 더 라인 건설을 시작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 데이터 및 인공지능국 통계에 따르면 AI 경제 가치는 약 50억 달러 수준으로 아직 AI 기술 초기 단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우디 왕세자는 네옴 스마트 시티 건설로 AI 기술 발전과 GDP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그리스의 아키로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더 라인’의 10억 달러(1조3000억 원) 규모 터널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물산 컨소시엄



이 시공할 터널은 32km 길이의 철도 터널로, 곧 폭발과 드릴을 이용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네옴시티의 다른 주택·항만·철도·에너지 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들은 사우디에서 현재 비공개로 입찰을 진행 중이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네옴시티 사업 수주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보니 건설사뿐 아니라 다른 업계 기업들도 관심을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도심 항공기와 자율주행 등의 사업을 바탕으로 이번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퀴어축제는 과연 인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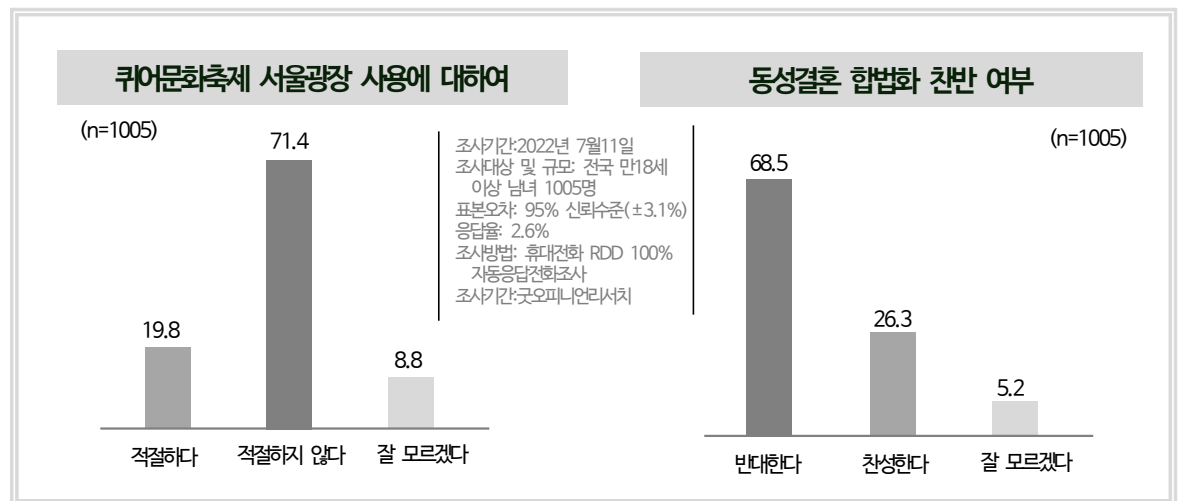
코로나 기간 열리지 못했던 서울 퀴어축제가 7월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의 인권보호와 평등이라는 슬로건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소수자의 인권이라며 해마다 열리는 퀴어축제 현장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과연 인권이 있는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퀴어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권이란 이름인 ‘퀴어축제’

‘퀴어’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다양한 성적 소수자를 통틀어 칭하는 말로, 퀴어축제는 성 소수자를 중심으로 모여 즐기는 행사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퀴어퍼레이드, 퀴어영화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퀴어축제는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해 벌써 2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매년 8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엔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취소됐다. 서울의 경우 연 참가인원 15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로 성장했다.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경남, 춘천에서도 퀴어축제가 열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진보 정치인들과 심지어 세계 여러 나라 대사관들도 행사를 지지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은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낸다. 동시에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별 중단을 외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다. 해마다 열리는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인권 축제인데 필요 이상으로 한국교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대다수 한국교회와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문화축제라는 이름 아래 일탈의 선정성과 함께 하는 상업성을 지적하며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퀴어축제의 선정성 문제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와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다르다.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선정적이고 음란한 공연과 행위들이 남녀노소 서울시민들의 쉼터인 서울광장에서 온종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다. 퀴어문화축제의 각종 부스는 동성간 성관계를 조장하는 선정적인 콘텐츠 전시와 음란하고 노골적인 성인상품 판매로 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외설스러운 곳에서 ‘인권’이라는 단어의 소중함을 떠올리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서울광장에서 행사가 결코 허용될 리 없는 이와 같은 선정한 풍속에 반하는 성격으로 문란한 공연과 행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비호와 서울시의 지원 아래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낯뜨거운 광경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은 다수 참가자의 복장이다. 물론 평범한 티셔츠 차림의 참가자가 더 많지만, 반나체에 가



까운 속옷 차림에 선정적인 메이크업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참가자를 광장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여성 참가자들은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가슴의 중요 부위만 가린 경우도 있고, 특히 건장한 체구에 여성용 비키니를 착용한 여장 남성이 눈에 많이 띈다. 물론, 그들의 성적체성, 성적 지향에 따라 복장을 하는 것으로 그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점은, 축제 내내 서울광장 여기저기에서 동성간의 키스, 백허그, 애무 등 성행위 묘사에 가까운 신체접촉을 목격할 수 있다. 반사회, 무질서의 세상을 떠올리게 된다.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는 역시 그들 존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성정체성’과 ‘동성간 성행위’를 시민사회 안에 최대한 어필하고 있었다. 퍼레이드카 위의 출연자들은 각각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고 ‘트랜스젠더’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올라, 현란한 노래와 춤을 통해 대중에게 그들만의 자유와 해방감을 표출하였다. 외설스럽고 음란한 문구의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이 같은 외설적이고 음란한 피켓, 퍼포먼스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거나 제재하는 경찰 또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무엇보다 동성애 성혁명의 물결에 휩쓸려 퀴어축제에 참석하는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들인 젊은이들이다. 젊은이들이 동성애의 폐해와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하다가 문란한 성욕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수많은 젊은이가 동성애 성행위로 인한 각종 질병에 감염되고 있고, 또 관계한 다른 젊은이에게 전염되고 있어 보건적으로 매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충분한 교육과 인격 수양을 거쳐 올바른 자아가 형성된 이후, 온전한

성인이 된 이후에 주어져야 할 바람직하다. 아직 성장과정을 거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가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만약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공공장소에서 볼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차별적’인 ‘인권침해’가 될 것이다. 동성애 축제의 과도한 노출과 성적 행위 묘사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1조에 따르면,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의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고, ‘서울광장 사용 시행규칙’ 제8조 7에 보면,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대다수 시민이 서울광장을 퀴어축제에 내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같은 다수 의견을 일절 귀담아듣지 않는 서울시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소수자 인권’으로 역공격

동성애 사회는 이렇듯 ‘소수자 인권’이라는 기치 아래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국제단체의 지원까지 힘입어 사실상 약자의 이미지를 가진 ‘소수’가 아닌 그 어떤 국민의 의견도 ‘무마’시킬 수 있는 타협 불가한 강한 세력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퀴어축제는 내용이 선정적이고 음란할 뿐만 아니라, 본질이 동성애 독재법을 제정하는 것에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심, 건강, 보건, 교육, 사상, 학문, 종교 등의 이유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혐오와 차별이 되기 때문에 금지된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모든 언론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유해성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되어, 동성애 반대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뇌 속 ‘행복 스위치’ 찾았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한 기억이 있는가 하면, 떠오를 때마다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나쁜 기억도 있다. 뇌가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이 밝혀졌다. 미국 솔크연구소 연구진은 뇌에서 기억과 이에 대한 감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발견, 학술지 '네이처'에 공개했다.

경험에 대한 평가와 기억은 생존에 필수

어떤 기억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떠올리 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기억이 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지만, 사고나 전쟁 같은 충격적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일이나 상황을 회피해야 할지 추구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과거에 겪은 비슷한 경험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결정을 제대로 하려면 뇌가 좋았던 일에는 긍정적 느낌을, 안 좋았던 일에는 부정적 느낌을 배당해야 한다. 감정을 기억과 연결하는 뇌의 능력을 ‘원자가 할당’이라고 한다. 좋은 경험의 긍정적 감정 또는 나쁜 경험의 부정적 감정의 ‘값’, 즉 원자가가 뇌에 잘 할당되어야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솔크연구소 연구진의 연구는 뇌가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어떻게 긍정과 부정으로 기억하는지 그 과정을 밝혀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앞서 2016년 쥐가 무언가를 학습할 때 뇌의 기저핵편도(BLA)에 있는 뉴런 군집이 이같은 느낌 값을 할당하는 역할을 함을 발견한 바 있다.

실험쥐의 뇌에서 좋거나 나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에 각각 형광물질을 넣고 첨단 광학 유전자 장비를 통해 활성화 정도를 관찰했다. 쥐에게 시끄러운 음색을 들려주며 쓴 먹이를 쥐 나쁜 기억을 새기거나 좋은 음색과 단맛을 연관시켜 좋은 기억을 심어줬다. 실험 결과 뉴런 군집이 좋거나 나쁜 감정 모두에 반응했다. 마치 뇌에 두 갈래의 선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좋은 감정은 뇌의 보상회로를 통해 기억되고, 나쁜 감정은 공포회로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 안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신호 할당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 철도가 있는 것과 같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엔 무엇이 두 갈래 길 중 어느 쪽으로 기차가 가게 할지 결정하는 선로 전환기 역할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연구진은 신경전달물질의 일종인 뉴로텐신에 주목했다. 뉴로텐신은 13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작은 물질로 체온과 식욕조절을 비롯해 의식을 깨우고 주의력을 높이는 등의 각성 기능이 있다. 뉴로텐신은 느낌 값 할당에 관여하는 세포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기억과 감정의 연계 과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른 신경물질들 역시 같은 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뉴로텐신의 역할을 특정할 수 없었다.

신경세포 말단에 고농도로 저장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은 뇌뿐만 아니라 체내의 신경세포에서 방출되어 인접해 있는 신경세포 등에 정보를 전달한다.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는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깃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신경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간격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하려면 어떤 매개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결정하는 물질 발견

연구진은 뉴로텐신이 사라졌을 때 동물의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 세포에서 뉴로텐신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제거했다. 뉴로텐신을 전혀 만들지 못하는 돌연변이 쥐를 만든 것이다. 뇌 속 BLA에 뉴로텐신 신호가 중단되자 연구진이 쥐에게 좋은 음색을 들려주면서 달콤한 맛과 연관시켰지만, 쥐는 긍정적 느낌을 기억에 할당하지 못하였다.

반면, 뉴로텐신이 없어도 안 좋은 경험에 부정적 느낌을 할당하는 기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끄러운 음색과 쓴맛을 연결시킨 부정적인 자극 사이의 연관성이 더 강해져 음의 원자가를 더 많이 할당

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뇌의 기본 상태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 뉴로텐신 수치를 높이자 보상을 학습하는 기능은 좋아지고 부정적 느낌 값은 적게 할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침내 기억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할당하는 신경전달물질을 정확히 찾아낸 것이다. 뉴로텐신이 기억과 느낌의 연결에 핵심 역할을 함을 확인한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법의 열쇠 되나?

이 연구는 뇌가 기본적으로 공포와 같은 부정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 좋은 자극에 부정적 반응을 할당하는 것이 뇌의 기본 기능이고, 뉴로텐신이 배출되어야만 긍정적 느낌 값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불안, 중독,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부정적 감정의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구진의 궁극적 목표는 앞으로 뉴로텐신과 관련된 다른 신호전달 경로나 물질을 계속 찾아내 새로운 치료 표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인간이 좋은 기억을 나쁜 기억보다 더 강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낼 계획이다.

행복한 추억만 떠올리는 ‘무드셀라 증후군’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람들은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 경향이 강해진다. 현실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과거의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좋았는데...’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인의 심리적 증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날 때, 이를 ‘무드셀라 증후군’이라 한다. 좋은 기억은 회상하고 좋지 않은 기억은 빨리 지워버리려는 퇴행심리로서, 일종의 현실 도피 심리라 할 수 있다.

생소한 이름을 가진 이 증후군은 성경의 구약성서에서 유래했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던 최장수 인물이다. 무려 일천 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인물이다 보니 세간에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 세대를 건너들며 장수했던 그를 모델로 하여 ‘무드셀라 증후군’이

라는 용어를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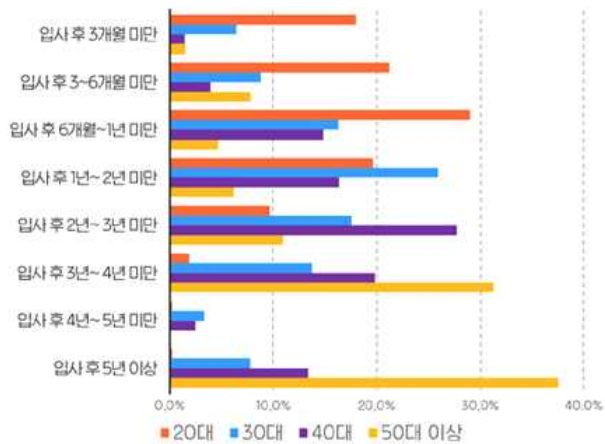
대다수 사람은 이름답고 평안한 행복을 현재보다는 과거의 추억 속에서 찾는다. 실제로, 과거가 현재와 미래보다 나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간 삶은 아주 행복했다고 착각한다. 특히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현재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해당 증후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연인의 단점을 보며 첫사랑의 상태나 옛 애인을 자주 생각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실업자가 된 이들이 과거 회사나 사업 등으로 승승장구하던 때를 떠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드셀라 증후군과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진 증후군은 과거의 나쁘고 비극적인 사실들만 기억하는 증후군으로서 이를 ‘순교자 증후군’이라고 한다.

‘대퇴직’의 시대와 ‘HR테크’의 부상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대퇴직(Great Resignation)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언택트 채용 시대 속 ‘HR테크’가 떠오르고 있다. 수시채용이 늘고 경력직을 ‘호을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수요가 늘면서 ‘기술’을 접목한 인적관리(HR) 플랫폼을 찾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직장인 연령대별 첫 이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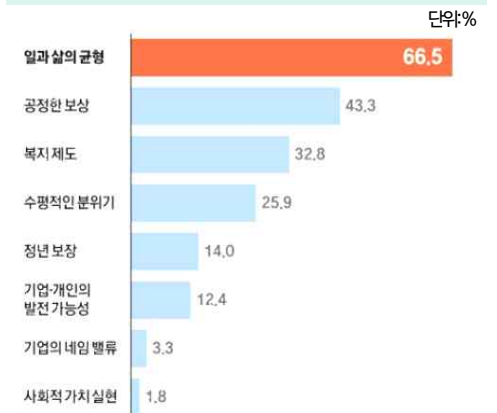
※ 이직 경험이 있는 국내 직장인 1024명 대상 조사, 자료:잡코리아

이직을 시도하는 이유



※ 이직 경험이 있는 남녀 직장인 502명 대상 조사, 자료:잡코리아

MZ세대가 보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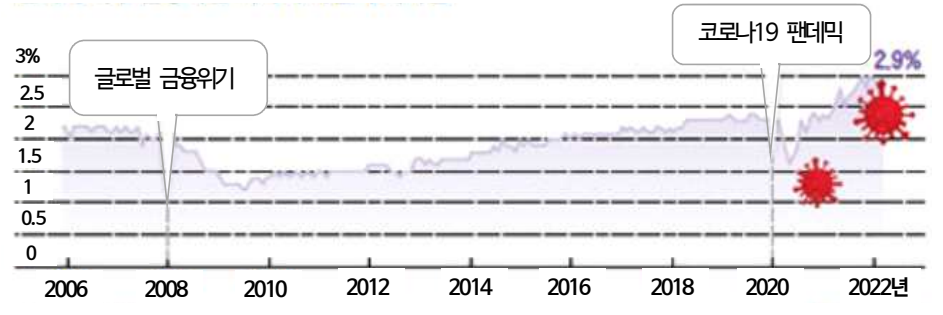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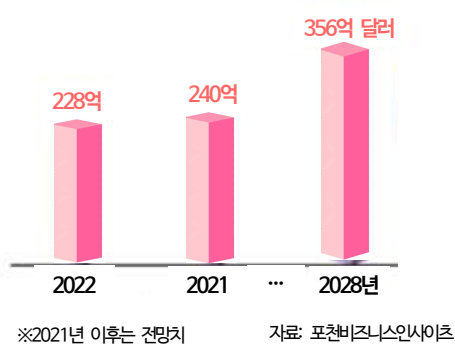
팬데믹 이후 급등하는 미국의 자발적 퇴사율



※ 2022년은 2월 기준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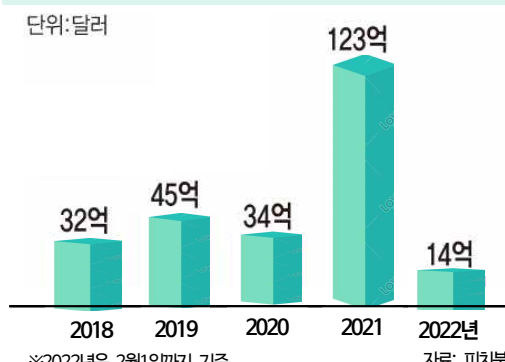
성장하는 글로벌 HR테크 시장



※2021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포춘비즈니스인사이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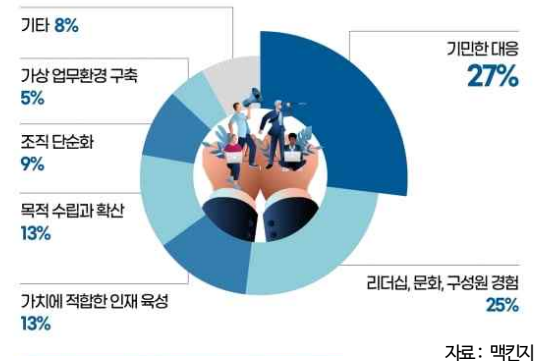
글로벌 HR테크 스타트업 투자 규모



※2022년은 2월1일까지 기준

자료: 피치북

HR리더들의 최우선순위도 조직의 기민성



자료: 맥킨지

다양해진 기업의 인재 채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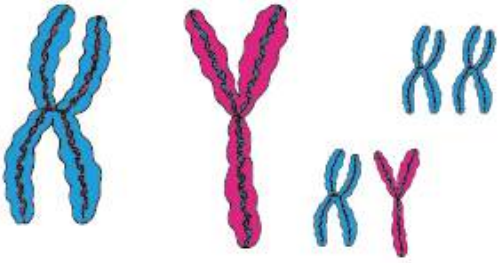
자료: 보스턴 컨설팅그룹

월급 500만 원 받기까지 소요기간

(기업 349개사 설문조사)

자료: 사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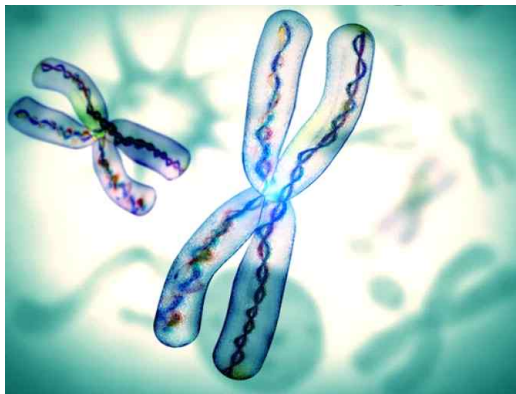




유전학적으로 성별은 구별되어 있다

X 염색체-불활성화 연구는 남성과 여성에서 더 많은 차이가 있음과, 수술로 남성을 여성으로, 또는 여성을 남성으로 바꿀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모든 학생은 남성 신체의 모든 세포가 여성의 모든 세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남성의 모든 정상 세포는 X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XX 염색체를 갖고 있다. 주요한 예외는 눈의 수정체와 혈액세포와 같이 핵이 없는 세포들뿐이다. 두 개의 활성 X 염색체는 유전자 생성물의 과다를 초래하는데, 이는 배아 발달에 치명적이며, 성인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세포에 있는 두 개의 X 염색체는 단백질을 과잉 생산하기 때문에, 한 개의 X 염색체는 (스위치가) 꺼져야 한다. X 염색체 불활성화라 불리는 이 과정은 용량 보상 문제와 관련된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배아 발달 초기에, 난자 세포 이외의 하나의 핵을 가진 모든 세포에서, 두 개의 X 염색체 중 하나는 무작위로 영구적으로 불활성화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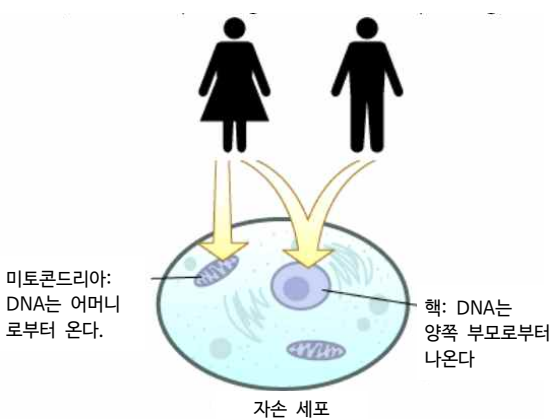


이 X 염색체-불활성화 현상은 그 과정을 발견한 메리 라이온의 이름을 따서 라이온화로 불린다. 여성의 라이온화는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세포에 하나의 X 염색체를 형성한다. 다른 점은 남성은 오직 한 종류의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X 염색체와 아버지에서 물려받은 X 염색체의 두 다른 X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둘은 동일한 세포가 아니다. X 염색체-불활성화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 여성에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X 염색체는 일부 세포에서 활성화되며, 아버지에서 물려받은 X 염색체는 다른 세포에서 활성화된다. 남성의 경우 X 염색체-불활성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경우 염색체를 가진 모든 세포는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를, 아버지에서부터 Y 염색체를 갖게 된다. X 염색체의 유전자들이 모두 불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X 염색체와 Y 염색체의 각 팔 끝에 위치하는

의사상동염색체 영역은 불활성화되지 않는다. 또한 X 염색체와 Y 염색체 모두의 의사상동염색체 영역에는 동일한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은 정상적인 발육에 필수적인 이 유전자의 두 기능적 사본을 각각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 외에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여전히 다른 유전적 차이들이 존재한다.

각인

유전체 각인이란 남성에서 특정 유전자가 꺼지고, 여성에서는 다른 유전자가 꺼지는 현상이다(*유전자 발현이 부모 원인에 의해 달라지는 후성유전학적 현상). 특정 유전자의 불활성화 여부는 유전자가 부모 중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부모로부터 한 특정 유전자를 받는다면, 그 유전자는 영구적으로 꺼질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부계로부터 각인된 유전자와 모계로부터 각인된 유전자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제어 시스템도 발견되었다. X 염색체-불활성화가 생식세포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포유류에서 난모세포는 초기 배아 조직에서 발달하는 생식선으로 이동하는, 전구세포인 생식세포로부터 발달한다. 그리고 나서 생식세포는 중요한 염색체 재배열 과정인 감수분열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각각의 개별 생식세포의 유전적 고유성을 갖는 원인이 된다. 생식세포는 성숙하고, 결국 기능적인 정자나 난모세포로 변한다. 새로운 연구는 특정 유전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꺼지거나 꺼지는 것을 발견했고, 정확한 X 염색체-불활성화 및 재활성화 서열은 정상적인 생식세포 분화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많은 요인에 의존하고 있었다. 연구는 X 염색체 '요요(yoyo)'의 치밀한 작용을 밝혀냈다. 만약 하나의 X 염색체가 잠시 불활성화되었다가 다시 재활성화된다면, 그것은 생식세포가 감수

분열에 들어가 난자세포로 전환하는 것에서, X 염색체가 불활성화-재활성화를 겪지 않는 생식세포에 비해 4배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비교하여, 애초에 X 염색체를 불활성화시키지 못했거나, 너무 빠르게 재활성화시킨 생식세포는 비정상적 유전자 발현 및 세포 분화 패턴을 보였다.

이 연구의 공동저자인 모리츠 바우어 박사는 한 가지 발견을 설명한다.

“또한 우리의 결과는 여성세포를 연구하기 위해 어떻게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지를 강조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남성세포를 사용하여 수행되며, 과학 지식에 있어서 성 격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성세포의 렌즈를 통해서 여성의 발달을 보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성 특유의 질병 진행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식세포 단계에서도 남성세포와 여성세포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 차이점들은 이제 막 탐구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호르몬 요법과 수술을 통해,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관측이다.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바꾸는 이른바 ‘성전환’에 사용되는 수술과 호르몬 치료는 성형수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외모를 바꾸는 시도이며, 남성을 여성으로, 또는 여성을 남성으로 만들지 않는다.

더 나아가, 포유류의 생식선은 기능성 난자와 정자로 발달되는 동안 광범위한 후성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후성유전지는 부모 마크가 확립되어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전에 재설정되어야 한다. 여성 생식계에서는 X 염색체 불활성화 및 재활성화는 가장 두드러진 후성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 사건 중 하나이지만, 이들의 동역학과 생물학적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은 “포유류 생식세포의 발달 과정에서 후성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의 동역학과 생물학적 기능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더 잘 이해된다면, 여성으로부터 남성을 만들 수 없고,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은 과학적으로 더욱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

유전학 연구가 많은 사실을 밝혀내면 낼수록, 여성으로부터 남성을 만들 수 없고,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 명백해 보인다. 이것은 성불편증(성별불쾌감)은 외과의사가 아닌, 심리학자를 필요로 한다는, 표준적 역사적 의학적 결론을 뒷받침한다.

(창조과학회 제공)



열방의 다이제스트

무력충돌 이스라엘-팔, 사흘 만에 휴전 합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가 무력충돌 사흘 만에 이집트의 휴전 중재안을 수용했다. 사흘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막강한 공세로 가자지구에서는 15명의 아동을 포함해 44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300명 이상 발생했다. 반면, 이스라엘 측 인명 피해는 부상자 3명에 그쳤다. PIJ는 휴전 발효 10분 전까지 사흘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1천 발에 가까운 로켓과 박격포를 쏘았지만 대부분 저고도 방공망인 아이언 돔에 요격됐다.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관할 지역에서 테러범 수색 중 PIJ의 고위급 지도자인 알-사아디를 체포했다. 당시 PIJ는 대 이스라엘 복수를 천명했고, 이를 우려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가자지구 경계에 병력을 대거 집결시킨 뒤 전투기와 야포 등을 동원해 선제공격을 가했다. 이후 PIJ는 이스라엘 남부지역과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대도시를 겨냥해 로켓과 박격포를 쏘며 맞섰다.

호주, 자칭 기독교인 비율, 50% 미만으로 하락

호주의 202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의 비율이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17% 포인트 하락했으며 반면, 스스로를 '비종교인'이라 표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호주 인구 중 43.9%가 기독교인으로 오세아니아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인 종교로 남아 있지만 2016년 52.1%, 2011년 61.1%에서 감소한 수치다.

CP에 따르면 "많은 교회와 교단이 수년간 교인 수 감소에 직면하고 성, 결혼, 젠더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문화적 경향과 점점 더 모순되면서 종교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호주대학의 르네 바커에 의하면 "2017년 12월 결혼의 정의가 남녀를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평생 맺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공식 변경됐으며, 인구조사 사이 5년 동안 안락사와 낙태법도 개정됐다"라고 했다. 특히 종교학교에 의한 차별과 관련해 종교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집트, 교회 법적 승인 이유로 기독교인 재산공격

이집트에서 교회의 법적 승인에 분노한 무슬림들이 콕트 교 신자들의 주택과 상점, 차량을 공격하고 피해를 입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지역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3년 건축한 교회의 법적 승인을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의 무슬림들은 교회 건축이나 복원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새 교회의 합법성을 거부했다. 칼리프 오마르 1세가 저술했다고 여겨지는 오마르의 조건은 그들이 참조하는 이슬람 텍스트 중 하나로 이 텍스트는 어떤 교회도 건축하거나 복구되어서는 안 되며, 기독교인은 기존에 설립된 교회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집트 인구의 약 10%를 구성하는 콕트족은 훗날 1세기 초 기독교로 개종한 고대 이집트인 혈통의 후손이다.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에 따르면 이집트는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최악의 20개국 중 하나이다.

北, 41년 만에 어랑천 발전소 완공

북한이 함경북도 어랑천 일대 발전소 건설에 착수한 지 41년 만에 마지막 공사인 3호 발전소 건설을 마무리했다. 어랑천 발전소는 1981년 6월 5일 김일성 주석의 교시로 함경북도 어랑군에서 건설이 시작됐다. 어랑천 상류에 언제(댐)식으로 3호와 4호 발전소를 건설하고 하루에 팔방댐을 쌓은 후 물길식으로 1·2·5호 발전소를 건설해 총발전 능력 13만4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장기

간 답보 상태에 빠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7월 공사장을 찾아 김일성 교시가 계신 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나도록 완공되지 못한 실태를 파악하며 거친 언사로 내각과 노동당 경제부·조직지도부, 군의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이후 노동당과 내각, 지역 사회의 총력전으로 2020년 7월 4호 발전소를 준공했고, 당 창건 75주년인 같은 해 2020년 10월 10일까지 3호 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다.

‘사망>출생’ 인구 자연감소 31개월째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8852명으로 집계됐다. 31개월 연속 마이너스(자연감소) 기록이다. 전국 시도별로는 세종시만이 유일하게 출생자 수가 145명 더 많아 자연증가를 기록했다. 5월 기준 전국 출생아 수는 2만7명으로 1년 전보다 8.8%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8명 더 늘어난 강원도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줄어 들었다. 5월 출생아 수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5월 사망자 수는 2만 88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8% 증가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사망자 수가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고령화 추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여파로 사망자 수가 1983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4만 4487명)을 정점으로 4월(3만6697명), 5월(2만 8859명) 등으로 점점 진정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예년보단 높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 2달 연속 6%대 기록

6월(6.0%)에 이어 7월(6.3%)의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23년 8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석유류와 외식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농산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올랐다. 특히 채소류 상승률이 25.9%로 높았다. 오이(73%), 배추(72.7%), 시

금지(70.6%) 등 가정집 식탁에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식재료들이 일제히 2배 가까이 뛰었다. 밥상에 올라오는 농축산물이나 외식가격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만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7.9%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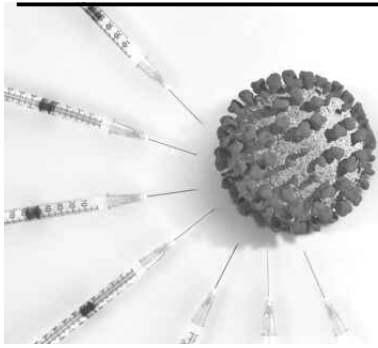
우회전시 부평구청사거리 잠재적 위험 높다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전국 60곳을 점검대상으로 발표하였다. 3년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가장 잦았던 곳은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로 총 8건이 발생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103번지 부근, 종암동 370번지 부근·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사거리, 전북 전주시 효자광장사거리로 각각 6건씩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빈번하지 않더라도 교통안전시설 등이 미비해 잠재적 위험이 제일 큰 곳은 인천 부평구청사거리로 총 14건의 위험요인이 있었다. 보행 신호 시간이 짧아 사고 위험을 안고 있었다. 또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에는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았다. 보행자 사고 원인으로 운전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큰 문제였다.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진화하는 코로나...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BA.5가 우세종이 되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하나인 BA.2.75(일명 켄타우로스)의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켄타우로스 변이는 어떻게 다른가

켄타우로스 변이는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6개국으로 확산됐다. 공식 분류 기호는 BA.2.75다. ‘스텔스 오미크론’ BA.2에서 갈라진 75번째 자손이라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의 특징을 가졌지만 BA.2.75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도록 돕는 돌기 단백질(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의 돌연변이가 36개나 된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변이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원조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50% 가까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도 스파이크 유전자 변이는 28개에 불과하다.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많으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피해 세포 내로 침입하기가 더 쉬워진다. 돌과 감염이나 재감염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전파력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다.

미국 아칸소주립대 연구 결과 최근 3개월간 인도 내 켄타우로스 변이 확산 속도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3.24배 빨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BA.2.75를 BA.5와 마찬가지로 ‘우려변이’로 지정했다. 해외 연구진은 켄타우로스가 BA.5보다 돌연변이가 더 많아 백신이나 자연면역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켄타우로스의 돌연변이 부위는 BA.5와 거의 겹치지 않는다. 올 초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던 환자가 BA.5에 재감염되고, 켄타우로스에 다시 감염되는 ‘재재감염’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켄타우로스와 BA.5가 국내에 동시에 퍼지면서 이번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기존 예측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켄타우로스 감염 증상

켄타우로스 변이 증상으로는 기존 코로나와 유사하나 두통이 동반한다. 감염증상은 두통, 근육통, 인후통, 고열, 무기력, 피로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대체로 경미하고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

변이 바이러스와 살아가기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혹은 그 단백질 껍데기를 몸속에서 합성하는 백신을 접종하면 즉각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계가 반응한다. 이때 면역계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이다. 항체 면역은 코나 입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의 세포를 감염시키는 일 자체를 막는다. 항체

면역은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혹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그 강도가 가장 세다.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항체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항체 면역이 약해지더라도 우리에게 세 포 면역이 있다. 코로나19에 맞춘 면역세포(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골라서 없앤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서 세를 불리려면 반드시 몸속의 세포를 감염시키고 나서 그 안에서 증식해야 한다. 이렇게 바이러스 증식 공장 역할을 하는 세포를 없애면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낫는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항체 면역은 풀릴 가능성이 커진다. 보통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 세포에 달라 붙는 단백질(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는 식으로 변이를 일으킨다. 이렇게 바뀐 단백질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는 예전 모양만 기억하는 항체를 피해서 우리 몸속 세포에 달라붙기가 쉬워진다.

하지만 그렇게 변이 바이러스에 항체 면역이 풀리더라도 세포 면역은 감염된 세포를 죽이기처럼 찾아서 없앤다. 세포 면역이 인식하는 바

이러스 단백질은 쉽게 변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자가 중증으로 이어져 사망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항체 면역과 비교할 때 세포 면역은 오랫동안 지속한다. 그러니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설사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감염자가 늘어나더라도 중증 환자 숫자는 작아진다.

백신이든 감염이든 바이러스에 일단 면역이 생긴 건 강한 사람은 설사 변이 바이러스가 항체 면역을 풀고 ‘돌과 감염’을 일으키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갈 테고, 그 과정에서 얻는 면역은 일종의 ‘자연 부스터 샷’ 효과를 낳는다.

■ 오미크론 및 하위 변이 특성 비교

	BA.1 오미크론	BA.2 스텔스 오미크론	BA.5	BA.2.75 켄타우로스
구분	초기 오미크론	오미크론의 하위변이	오미크론의 하위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변이
전파력	‘델타’ 변이보다 2, 3배 빠름	BA.1보다 30~50% 빠름	BA.2보다 35.1% 빠름	BA.5보다 3.2배 빠르다는 보고 있음
최초 발견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난해 12월 영국	3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5월 인도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질병관리청, 외신종합



코로나 걸렸을 때 먹어야 할 음식

■비타민D

비타민D는 ACE2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바이러스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지하고, 코로나와 관련된 합병증을 줄인다.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달걀노른자이다. 100g의 달걀노른자 안에는 하루 필요량의 27% 정도의 비타민D가 함유되어 있으며, 연어에는 66%, 참치 통조림 하나에는 34%의 비타민D가 함유되어 있다.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A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의 색소(붉은색, 녹색, 노란색 및 주황색)일 뿐만 아니라 항산화제이다. 비타민A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반응을 향상하며 질병의 중증도를 감소시킨다. 비타민A는 소나 닭의 간, 고등어, 당근, 시금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지용성비타민이므로 살짝 볶거나 데친 후 섭취한다.

■아연

아연 결핍은 코로나 환자의 감염 위험 증가 및 더

나쁜 예후와 관련된다.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아연은 세균 감염 위험을 동시에 감소시키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적 ACE2 수용체의 활성을 감소시킨다. 같은 쇠고기, 다크 초콜릿(카카오 70% 이상), 굴, 캐슈너트, 호박씨, 렌틸콩에 함유되어 있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과 코로나의 잠재적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감소시킨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부정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면역 체계의 과잉활동을 말한다.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생선, 견과류 등에서 치아시드나 아마씨, 호두 등에 풍부하다.

■비타민C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 비타민C를 제공하는 것이 질병 기간 회복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귤류 과일, 풋고추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아세로라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1,867%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 고추 100g에도 하루 필요량 142% 함유되어 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창조주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만나 본 비신자들 중에는 유독 ‘과학주의’에 물든 이들이 많았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코 성경에 ‘너무도 일상적인 사건인 듯 태연스럽게’ 등장하는 여러 기적에 관한 이야기다. 얼핏 보기에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모두 기적에 바탕을 둔 것 같다. 말씀을 통한 창조,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다 그렇다. 과학주의를 신봉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로 전도하기란 그래서 더더욱 만만치 않다. <기적>의 저자인 C.S.루이스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기적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배후에 자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진상을 간파하고 그 세계관의 허점을 예리하게 도려낸다.

자연주의의 빈틈-기적의 통로

자연을 실체의 전부로 파악하는 자연주의자는, 현재 이성적 사고나 추론이라 부르는 유형의 정신적 행위는 자연선택, 즉 생존에 덜 적합한 유형의 점진적 도태 과정을 통해 진화되어 온 것으로 생각한다. 자연선택을 통해 그 반응 중에서 생물학적으로 해로운 반응은 계속 제거됐고, 생존에 적합한 것은 증가하여 왔다고 본다. 그러나 반응은 아무리 향상을 거듭한다 해도 결코 통찰의 행위로 변할 수 없고, 지식은 실험과 거기서 나온 이성적 추론에 의해 성취된 것이지, 반응의 향상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게 저자의 반박이다.

초자연주의를 인정하는 유신론자는 이성(하나님의 이성)이 자연보다 더 오래된 것이며, 거기서 자연의 질서 정연함이 비롯되었다고 여긴다.

저자는 세상 안에 인간의 이성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이다. 결국 “초자연은 인간의 신경과 근육에 작용하는 인간 뇌를 방편으로 하는 식 말고 다른 식으로도 시공간 속에 특정한 결과들을 낳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다면, 자연은 그 전체가 이미 초자연이 낳은 거대한 결과물이다. 그 하나님은 인간 정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자연을 통해 들어오고 계시다. 자연의 존재가 유지되는 것도 아마 하나님 덕분에일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일 외에 다른 일도 자연에게 하시는가를 물어야 한다. 기적은 바로 그 ‘다른 일’을 의미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의 네 가지 특성

성경 속 기적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힌두교나 이슬람교의 경우는 거기서 기적의 부분을 다 제거하더라도 본질적 요소는 전혀 손상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적 이야기다. 자연주의적 기독교는 기독교의 고유한 요소를 모조리 제거한 기독교에 불과하다.

어떤 경우는 기적의 신뢰성과 그 종교의 신뢰성이 서로 반비례하기도 한다. 만약 자연은 벗어나야 할 환영에 불과하다고 가르친 붓다가 자연계에 어떤 효과를 낳는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또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기독교의 기적들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갖게 된다.

성경 속 기적은 자연법칙을 깨뜨리지 않는다.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없애거나 창조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그분이 그 지점에 어떤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 처녀의 몸 안에 기적적인 정자를 창조하신 것은 어떤 자연법칙을 깨뜨린 것이 아니다. 자연법칙은 즉시 그 사건을 떠맡는다. 임신이 뒤따르고, 모든 정상적인 법칙에 따라 아홉 달 후면 아이가 태어난다.

따라서 자연법칙의 규칙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적의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데, 저자는 이 사실을 쉬운 일상의 예를 들어 설명해 준다. 누군가가 자기 방의 책상 서랍에 6페니를 넣어 놓고 다음 날에 다시 6페니를 더 넣어 두었는데 중간에 도둑을 맞았다면, 그 서랍에는 2페니밖에 안 남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6+6=12’라는 산수 법칙, 곧 자연법칙이 깨진 것은 아니다. 그 서랍이 깨졌거나 국별이 깨졌을 뿐이다. 도둑으로 인해 생긴 상황은 본래의 상황과 같이 산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과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 비슷한 일종의 조작이나 간섭,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기적은 과학자가 고려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요소, 즉 초자연적 힘을 그 상황 속에 도입한다.

성경 속 기적은 성육신 기적의 변형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중심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다른 기적은 모두 이 기적을 예비하는 것이거나, 이 기적을 전시하는 것이거나, 이 기적에서 유래하는 것들입니다.” 저자는 성육신의 기적은 초자연과 자연의 경계에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간의 복합체적 성질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하강과 재상승’이라는 세상 전체에 쓰여 있는 친숙한 패턴 또한 잘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식물은 먼저 씨앗으로 자신을 축소시켜 땅 밑으로 들어가야 새 생명으로 올라오고, 동물과 인간 역시 태 안에서 정자와 난자로 먼저 낮아지고 작아져야 한다. 사람의 도덕적, 정서적 삶에서도 자기 부인의 죽음을 거쳐야 원숙한 인격으로 재상승할 수 있다. 자연 안에 이런 패턴이 있는 것은 이 패턴이 먼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경 속 기적은 하나님이 늘 해 오시던 일들의 축소판이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매년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축소판으로 드러낸다. 그분은 물과 토양과 햇빛을 주스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식물 유기체를 창조하시며, 그렇게 만들어진 주스에 적절한 조건이 맞춰지면 포도주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해에 한번은 성육신하신 분으로서 그 과정을 단축시켜 보이셨다. 순식간에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다. 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식물 섬유조직 대신 어떤 토기 항아리들을 사용하셨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이 늘 하고 계신 그 일이었다. 기적이란, 말하자면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기적이 만들어내는 그 일 자체는 평범한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때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은 전혀 반자연적인 영이 아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거나 부활은 새 창조의 기적인데, 물위를 걸으신 기적은 영과 자연의 관계가 개조되어 영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자연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장차 새롭게 회복될 세상에서 인간도 어떤 조작이나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원하는 것만으로도 물질에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을 예기해준다. 또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승천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단순히 영의 상태가 아니라 몸의 상태이기도 하다는 것, 따라서 자연의 상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과 자연주의 철학이 결합되면 서부터 사람들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만을 과학적 사고로 인정하려 했다. 결국 창조주를 배제한 과학 지상주의가 만연한 세상은 엄청난 기만 가운데 창조 질서를 왜곡시킨다. <기적>의 저자 루이스는 우주와 지구 그리고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진리를 ‘기독교주의’ 없이 애둘러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기독교의 핵심질문에 26권의 변증서로 답하다
(기독교 팩트체크)에서 발췌하였다.

Good News



당신을 참 행복으로 이끄는 리빙웨이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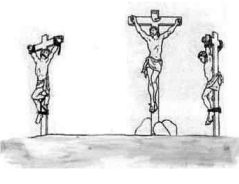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1				3		15		
				4			15		16
	2	2							
6		5			5			16	
					10	10			
6	7							12	
			17	17		11	13		11
	7	8		18					
9		9				14			
8					13			12	

가로문제

1. 일 년 중 가을이 시작된다는 날
2. 책을 팔거나 사는 가게
3. 산이나 숲의 나무를 베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4. 하늘과 땅이 맨 처음 생겨남
5.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침
6.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
7. 세금이나 빚 따위를 덜어 주거나 모두 없애 줌
8. 맡고 있던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하는 인사말
9. 속세와는 달리 경치나 분위기가 아주 좋은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두 가지 이상의 안을 적당히 조정하여 내는 안
11. 어떤 유동체에서 팽이처럼 회전하는 부분
12. 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
13. 벽을 뚫어 작은 문을 내고 그 안에 물건을 넣어 두

게 만든 장

14. 통하여 다니는 길
15. 천리 밖의 것도 볼 수 있을 만한 시력이라는 뜻으로, 사물을 잘 꿰뚫어 보는 뛰어난 능력을 이르는 말
16. 몹시 고된 업무
17. 스승이 없이,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함
18.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세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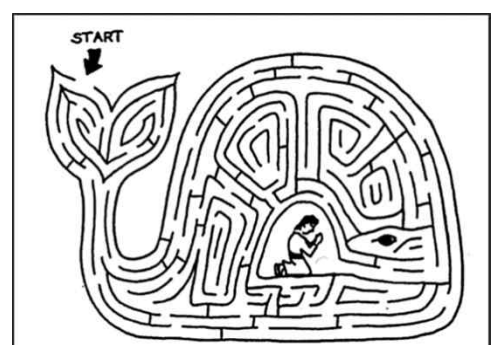
1. 어떤 자리나 조건에 적당한 대상을 소개하는 내용의 서류
2. 갈수록 점점 더 좋거나 재미가 있음
3. 무덤의 풀을 베어서 깨끗이 함
4.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양
5. 전통적으로 그 사회의 대부분 사람이 해마다 즐기고 기념하는 날
6. 사람이 심어서 기른 산삼
7. 생선을 주재료로 하여 고기, 채소, 두부 따위와 갖은양념을 넣고 고추장을 풀어 얼큰하게 끓인 찌개
8. 무엇을 가려내는 데 특별한 재주와 자격을 가진 사람
9. 관계하고 있던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관계를 끊고 물러남
10. 자동차 따위에 연료용 액화 석유 가스를 넣어 주는 곳
11.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12.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불기운이 방바닥 밑으로 난 방고래를 통해 퍼지도록 하여 방바닥 전체를 덥게 하는 난방 장치
13. 높은 온도로 광석을 녹여 철, 구리, 납 따위의 금속을 제련하는 세로형의 가마

14. 금융 기관에서,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한 사람에게 출납의 상태를 기록하여 주는 장부
15.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함
16. 눈 아래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17. 학회에서 학회 소식이나 학술 논문, 연구, 조사, 보고 따위를 실는 잡지나 신문

<지난 7/8월호 정답입니다>

휴	가		장	의	사		체	불
전			마	주	근	깨		괘
선	풍	기		단		달		지
		역	만	장	자	음	료	수
	중	력		수				
구	독			새		명	상	
설				유	치	원	조	
수	제	비		일	상	회	심	
		상	반	신	회		박	
하	수	구			복	지	부	동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순종강 축제 ■ 7월 10일



삼산2목장



계양목장



비전목장



남동목장

평택 광명교회 아웃리치 ■ 7월 23일



차세대
여름성경학교



◀연령별모임
서울노회시상▶



◀베이비사워
선교스쿨▶





이진 자매
요셉청년부

“하나님을 오늘도 활짝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깔끔하시다(나와 달리). 집 청소를 내가 하는 그 어떤 분보다 깔끔하게 하신다. 설거지할 때 엄마의 깔끔함에 도달하려면, 설거지가 끝난 후 싱크대의 물기를 꼭!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안일을 할 때 엄마에게 참 많이 혼났다. 엄마가 보기엔 깔끔하지 않아 보이는 상태가 나에겐 이미 충분히 깔끔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나에게 변화가 생겼다. 나는 요즘 설거지를 끝내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싱크대의 물기를 꼭! 제거한다. 엄마는 진이가 설거지를 할 때가 가장 주방이 깨끗하다고 칭찬을 하신다. 깔끔한 주방을 보고 뿌듯해하는 엄마의 미소가 글을 쓰는 지금도 떠올라 나도 미소 짓게 된다. 내가 어찌다 이렇게 변했냐고 묻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였다. ‘사랑하는 마음’.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행동에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찾아왔다.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불편한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불편함을 참아내는

이유는 딱 하나.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은 평소처럼 설거지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정결한 마음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은 내가 도달하기에는 때로는 잔혹하게 여겨질 정도로 어렵고 높은 기준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주아로 묵상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와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가 말씀에 대한 내 예전 반응이었다. 어렵다는 생각은 못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핑계로 변했고, 그렇게 난 거룩한 삶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했다. 하나님을 흐릿하게 알 순 있어도, 생생하게 느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 성령충만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나는 뒤에 두 단어를 더 말한다. “와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노력할게요!”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될수록 억지로 순종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 것들이 참 많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깐. 나는 주님의 슬픔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니깐. 그냥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내 행동 변화의 유일한 조작변인이었다.

(요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신다. 우린 누군가를 점점 더 깊이 사랑할 때, ‘내가 주고 싶은 것’보다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에 더 주목하게 된다. 내 사랑의 표현방식이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이 받고 싶은 사랑의 표현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통해 1초라도 더 행복해했으면 좋겠으니깐.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 하나님이 내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더 커질 때가 있다. 죄책감이라는 뽀족한 가시들이 내 마음에 깊숙이 꽂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난 기억하려고 한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말이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정도를 판단하실 때 ‘그 완벽한 거룩의 기준에 도달했는지 못했는지’로 내 사랑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 완벽한 거룩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죄인인 나에겐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내 사랑을 판단해주신다. 진짜 하나님은 긍휼의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드러나는 행동 자체만 보시지 않고, 행동하는 속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엄마를 사랑한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행동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한다. 다른 것이 전혀 없지 않은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칠 정도로 꼭 차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실 때,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내 사랑을 ‘표현’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도 활짝 웃게 해드리고 싶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 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C3TV 인터넷 방송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주일	1부(축제예배)	오전 09:00	지하1층 본당
	2부(축제예배)	오전 11:30	지하1층 본당
	3부(청년예배)	오후 03:00	지하1층 본당
	4부(테마예배)	오후 05: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09:00	지하1층 본당
주일 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3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30	3층 조이랜드홀
	중·고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홀
	청년(요셉가이드온)	오후 03:00	지하1층 본당
국제 지역	영어예배	오후 02:30	지하2층 블루오홀
	미얀마예배	오후 03:30	지하2층 블루오홀
	카렌족예배	오전 09:00	지하2층 블루오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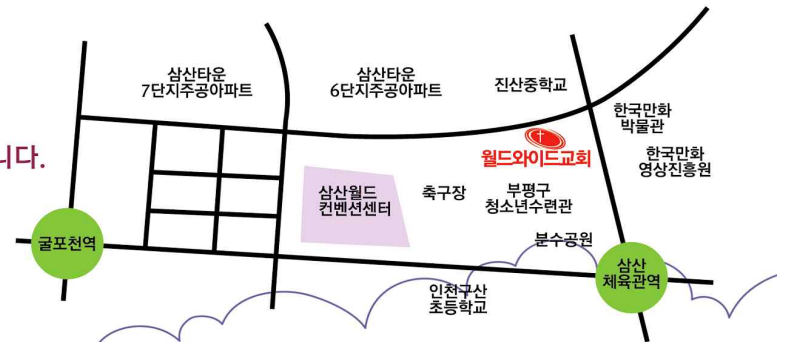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전화: 032)501-9686~7
•Fax: 032)503-9686
•http://www.wwch.or.kr

29기 행복발전소 월드와이드 문화아카데미

강좌일정 : 2022년 10월 15일(수) ~ 11월 24일(토) 최대 8주간 / 접수기간 : 2022년 9월 1일(목) ~ 10월 4일(화)

강의명	강사	강사소개	강의기간	요일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료 (8주 기준)	정원
스마트폰 100%활용	장선경 선생님	스마트폰 활용 SNS소통 전문강사	10월 5일 ~ 11월 2일 (5주 강좌)	수 / 오전 10~12시	3층 유년부실	1만원	10명
건강한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이희순 선생님	홍대미대 졸업 명지대 미술치료전공	10월 6일 ~ 11월 24일 (8주 강좌)	목 / 오전 10~12시	2층 영아부실	1만원	10명
홀트로 100세 살기	손향숙 선생님	전 YS휘트니스센터 강사 현 휘트니스GX강사 (태보, 근력, 줌바댄스)	10월 7일 ~ 11월 11일 (6주 강좌)	금 / 오후 1:30~2:30	2층 영아부실	1만원	6명
카페바리스타 입문	최경순 선생님	월드와이드스테이션 카페바리스타	10월 8일 ~ 10월 29일 (4주 강좌)	토 / 오전 10:30~12시	1층 카페	1만원	10명

- 수업의 집중을 위해 최소 실비를 하고 나머지는 교회가 지원합니다.
- 문의: 월드와이드교회 (032) 501-9686~7
- 담당자: 최성훈 목사 010-4526-4065
- 모든 강좌는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됩니다.
- 월드와이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소속의 건전한 교회입니다.



2022 하반기 월드와이드 해피 실버스쿨



주 제 : 행복한 인생, 행복한 노년

2022.9.8-10.6
(매주 목요일) 오전 10:20-13:00

장 소 : 4층 비전홀

대 상 :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

프로그램 : 건강체조, 영화,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등

*어르신들을 위한 정성어린 식사도 대접합니다.

담 당 : 팀장 이흥자권사(010-8736-2035)

최성훈목사(010-4526-4065)



축복과 소망의 월드와이드 9-10월 일정

3주 리더십 순장스쿨 8월 31일 ~ 9월 14일
매주수요일 오후 8시, 본당

전교인 산상기도회 9월 2일 (금)
천보산기도원 오후 8시30분

하반기 순개강 축제 9월 4일 (주일)
오후 5시, 본당

젯스 개강 9월 4일 (주일) ~ 2023년 1월 29일
오후 1시 30분, 3층 초등부실

실버스쿨 9월 8일 ~ 10월 6일
매주목요일 10:20~13:00 4층 비전홀

하반기 전도축제 발대식 10월 2일 (주일)
주일 1,2부 예배시, 본당

하반기 문화아카데미 10월 6일 ~ 11월 24일
하반기 성경통독 10월 13일(목) ~ 14일(금)

종교개혁주일 10월 30일 (주일)

9

10

